

# 지각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sup>†</sup>

이 은 선

김 종 남<sup>‡</sup>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남녀 고등학생 387명을 대상으로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각각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두 가지 인지적 요인을 통하여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사회불안 간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로 거쳐야만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인한 사회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에게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줄이도록 도와야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사회불안,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sup>†</sup>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18)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2018년 한국건강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이 연구는 2019학년도 서울여대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종남,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Tel: 02-970-5561, E-mail: kimjn@swu.ac.kr

사회불안 증상은 연령과 시기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며, 초등학생에 비해 중, 고등학생의 사회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사회불안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며, 이로 인한 불안을 호소한다(Beidel, Turner, & Dancu, 1985). 또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대인 관계 및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등교 거부와 학교에서의 수행 손상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선영, 김의철, 2003; LaGreca & Stone, 1993; Beidel, 1991).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안 수준이 더 높아지고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을 수도 있다.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청소년은 우울장애, 신체화장애, 약물남용장애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등 다른 정신장애와의 공동발병률도 높아지며(Essau, Conradt, & Peterman, 1999), 자살 위험성의 증가 및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난다(Davila & Beck, 2002; Mendlowicz & Stein, 2000).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불안의 발달 및 유지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불안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따라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된다(Schlenker & Leary, 1982). 대인불안은 타인과 대면하는 상황에서, 수행불안은 수행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및 두려움을 의미한다(박선영, 2003; Schlenker & Leary, 1982).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은 서로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며, 서로 구분되는 변인임이 많은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다(박선영, 2003; 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이처럼 어떤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불안을 느끼게 되는 심리적 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박선영, 2014; Beazley, Glass, Chambless, & Arnkoff,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두 하위 유형에 미치는 경로를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외적 요인 및 내적 요인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으며, 개인외적 요인 중에는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불안, 부모와의 애착, 외상경험, 또래 관계 등이 있다(강민지, 김광웅, 2008; 김상희, 한기순, 2017; 송은영, 하은혜, 2008; Ballash, Leyfer, Buckley, & Woodruff-Borden, 2006). 특히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그들에게 사회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중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연, 2013; 박효정, 2015; 최은경, 2017). 즉 부모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사회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양육행동의 개념 중 하나로, 자녀의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부모가 자신의 기대대로 자녀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조종하고자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Barber & Harmon, 2002). Soenens, Vansteenkiste와 Luyten(2010)은 기존에 단일차원으로 측정되던 심리적 통제를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높은 성취를

기대하여 나타나는 통제적 양육방식으로, 자녀에게 자기비난적인 태도를 유발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죄책감, 우울, 불안, 중독 등의 심리적 문제들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명희, 신희수, 2012; 안희정, 2012).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 아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체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통제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통계청,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에서도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미치는 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Chang, Schwarts, Dodge와 McBride-Chang(2003)은 부와 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 Arim과 Shapka(2008)는 모의 심리적 통제는 사회불안 등 자녀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더 증가시키지만 부의 심리적 통제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윤선숙(2005)에 따르면 부와 모가 과잉통제했던 청소년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회불안이 더 높았으며, 최은경(2017)도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 모두가 사회불안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서로 구분되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Clark와 Wells(1995)는 사회불안을 인지모델로 설명하였으며, 사회불안과 관련하여 메타분석을 한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홍영근, 이경숙, 2013).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지적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주의의 초점이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향하고,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을 유지시킨다(김성주, 이영순,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불안이 왜곡된 인지적인 요인과 관련하여 많이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인지적 측면에서 사회불안에 미치는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 중 인지적 요인은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부정적 자동적 사고, 낮은 자기효능감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은영, 하은혜, 2008; 오언, 방명애, 2012; 이유진, 2013; Gaudiano & Herbert, 2006). 이러한 인지적 요인들 중, 완벽주의는 모의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김지연, 2013),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인 수행불안 사이를 매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박신영, 2014). 이러한 완벽주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는 완벽주의의 모든 하위 요인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완벽주의 중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정윤과 조영아(2001)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하위 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비난이 높아질 때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안현선과 박성연(2010)도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측면이 높아질 때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 집단이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 집단 보다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 중 대인불안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월등히 높은 것과 관련하여(황혜리, 2001), 사회불안이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핵심 특성인 자기평가와 더 강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김윤희, 서수균, 2008).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인지적 요인으로 Higgins(1987)가 제안한 자기불일치(self-discrepancy)도 제안되었다. 자기불일치 이론은 자기의 영역을 실제적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의무적 자기(ought self)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의무적 자기의 불일치가 심리적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격차를 크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되었다(김완태, 2016; 신혜진, 2005; 이가은, 강민주, 2011; 정승아, 오경자, 2005; Higgins, 1987; Strauman, 1989). 조용래와 표경식(1996)은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불일치가 불안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는 수행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일 것이라는 가설 하에 제안된 개념으로, 지적 능력 및 성취와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수행불안, 시험불안, 우울,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김대현, 2016; 신혜린, 2003; 조용래, 표경식, 1996; 표경식 등, 1998). 또한 신혜진(2005)은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 간의 불일치가 클수록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 수준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성취

및 지적 능력과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를 기초로 하여 측정하는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사회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완벽주의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성취 지향적이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부모의 통제적인 행동은 자녀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latt, 1995; Enns, Cox, & Larsen, 2000). 이러한 통제 유형 중에서도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지연, 2013; 박신영, 2014). 이는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에게 지나친 성취 기대와 통제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수행 결과에 과도한 부담감을 느껴 완벽주의 성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김지연, 2013).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영향을 받아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높으므로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의무적 자기와의 괴리를 크게 지각하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대현(2016)은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며, 우울이나 불안의 심리적 부적응을 겪는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부적응적 완벽

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탐색함으로써 이전에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인 간의 영향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정소희와 양성은(2011)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 간의 유의한 영향력을 보고하였는데,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관심이나 성취 기대 및 압력 수준을 의미한다(박수자, 1996).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 지향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조종한다는 점에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들은 정서적, 경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성인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 시기에는 성인에 비해 성취와 학업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낀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불안의 증상은 심리 사회적 발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장기적인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오경자, 양운란, 2003). 더 나아가 사회불안의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중재가 개입되지 않는 경우, 만성화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불안장애를 겪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홍영근, 이경숙, 송호준, 백미숙, 2012). 특히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에 비해 성취와 학업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사회불안 수준이 중학생의 사회불안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국화, 하은혜,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예측 하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로써,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실제 상담현장에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로 인한 청소년기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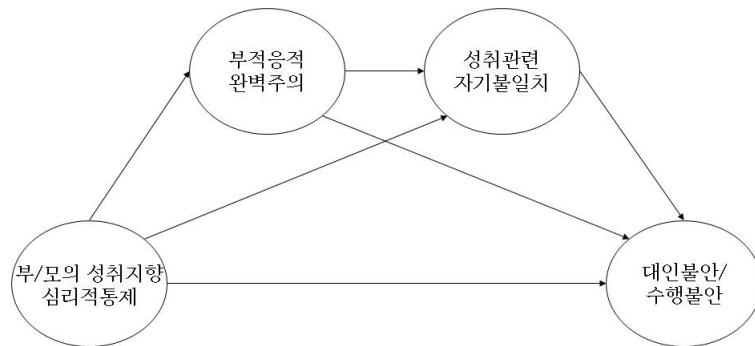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즉,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 참여자

수도권 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총 435부가 배부되어 이 중 419부가 수거되었고, 무응답 문항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 32부가 제외되어 총 38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80명(46.5%), 여학생이 207명(53.5%)였으며, 학년은 1학년이 237명(61.3%), 2학년이 74명(19.1%), 3학년이 76명(19.6%)이었다.

### 측정도구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Soenens, Vansteenkiste와 Luyten(2010)이 개발하고, 조은주와 이은희(201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DAPCS) 척도의 하위 요인 중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통제정도를 각각 9문항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성과가 남보다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신다’,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될 때만 나를 존중해 주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아버지에 대한 문항은 .92, 어머니에 대한 문항은 .92이다.

**부적응적 완벽주의.**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이 제작하고, 정승진과 연문희(2000)이 번안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사용하였다. Frost 등(1990)은 본 척도에서 개인적 기준, 조직화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을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였다. 이 중 허심양(2011)은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판이 완벽주의 자체의 핵심적인 측면이 아닌 완벽주의의 발달에 기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에서 두 차원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실수에 대한 염려, 수행에 대한 의심에 해당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부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내게는 완전히 실패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내가 실수를 하면 나에게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낮아질 것이다’ 등이 있다. 본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이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조용래와 표경식(1996)이 Higgins의 자기불일치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하여 타당화하고 신혜린(2003)이 수정한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척도(Achievement Self-

Discrepancy Scale: ASD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자신의 성취 및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며(10문항),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항상 남들보다 잘 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유능한 사람이어야만 한다’ 등이 있다.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 응답한 의무적인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여, 실제 자신의 모습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평가(10문항)한다. 후반부의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취관련 불일치 지각 정도는 후반부에 응답한 10문항의 점수만을 합산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5이다.

**대인불안.**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중 대인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LaGreca와 Lopez(1998)가 개발하고 양재원 등(2008)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A)를 사용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8문항),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 일반적 사회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5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이다.

**수행불안.** 사회불안의 하위유형 중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Beidel, Turner와 Morris(1995)가 개발하고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한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의 하위 척도인 수행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예시 문항으로는 ‘어떤 집단이나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발표할 때 긴장한다’,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겁이 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포와 전체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된 연구모형의 평가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2단계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은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먼저 확인한 뒤, 구조모형을 검토하여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실시하는 2단계 접근법을 제안하였다(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형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므로 먼저 각 측정 변인들의 정규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후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고, 각 구조모형을 검토한 뒤, 부트스트랩(ML 방식) 검증을 사용하여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년 1월 3일 심사(승인번호: SWU IRB-2017A -54)를 통과하였다. 설문 진행은 2018년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6주간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를 배포하였으며, 법정대리인이 참여에 동의하고 서명한 뒤, 학생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주요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  $r=.93, p<.01$ , 을 보였고,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  $r=.43, p<.01; r=.44, p<.01$ , 을 나타냈다. 또한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r=.28, p<.01; r=.29, p<.01$ , 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  $r=.45, p<.01; r=.47, p<.01$ , 을 보였고,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r=.28, p<.01; r=.30, p<.01$ , 을 나타냈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유의한 정적 상관,  $r=.58, p<.01$ , 을 나타내었으며,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  $r=.59, p<.01; r=.46, p<.01$ , 을 보였다. 성취 관련 자기불일치는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  $r=.49, p<.01; r=.42, p<.01$ , 을 보였으며, 대인불안 역시 수행불안과 유의한 정적 상관,  $r=.68, p<.01$ , 을 나타냈다.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관계 (N=387)

	1	2	3	4	5	6
1.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1					
2.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93**	1				
3. 부적응적 완벽주의	.43**	.45**	1			
4.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44**	.47**	.58**	1		
5. 대인불안	.28**	.28**	.59**	.49**	1	
6. 수행불안	.29**	.30**	.46**	.42**	.68**	1
<i>M</i>	13.56	13.71	29.31	23.70	37.78	17.22
<i>SD</i>	5.97	6.25	11.12	9.62	13.25	7.29

\*\*  $p<.01$ .



##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행을 위한 가정인 정규성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관측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각 관측변인은 왜도가 2미만이고, 첨도가 7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정규분포를 만족해야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있다(Curran, West, & Frinch, 1996). 정규성 확인 결과, 관측변인들의 왜도는 .51~1.7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41~2.62의 범위로 확인되어 모든 데이터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연구모형 별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검증결과, 모든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통제의 측정모형에서는  $\chi^2(df)=83.214(29)$ , NFI=.967, CFI=.978, TLI=.966, RMSEA=.070으로 나타났다.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통제의 측정모형에서는  $\chi^2(df)=80.972(29)$ , NFI=.969, CFI=.980, TLI=.969, RMSEA=.069로 확인되었다. 또한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측정모형에서는  $\chi^2(df)=40.421(29)$ , NFI=.985, CFI=.996, TLI=.993, RMSEA=.032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측정모형에서는  $\chi^2(df)=36.119(29)$ , NFI=.987, CFI=.997, TLI=.996, RMSEA=.025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측변인이 잠재변인들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측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82.214(29)$ , NFI=.967, CFI=.978, TLI=.966, RMSEA=.070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beta=.472$ ,  $p<.001$ ,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217$ ,  $p<.001$ ,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546$ ,  $p<.001$ , 와 대인불안,  $\beta=.582$ ,  $p<.0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대인불안,  $\beta=.187$ ,  $p<.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대인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2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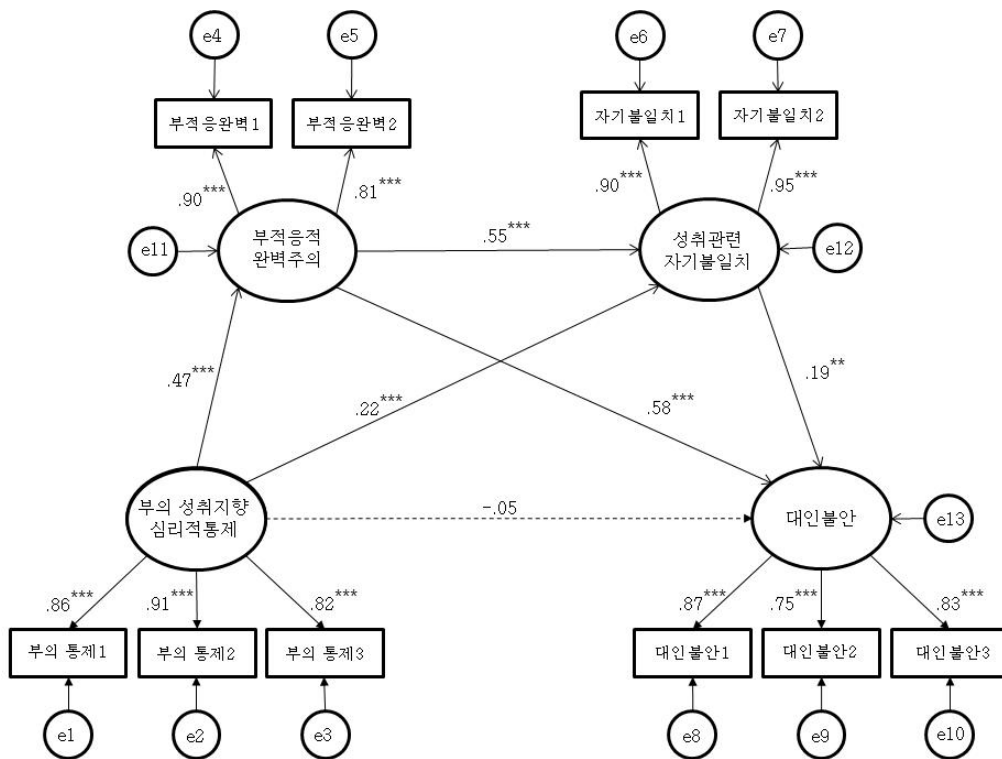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03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대인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20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대인불안으로 가는 이중매개의 경로는 유의확률 .001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부의 성취 지향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로써 대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적응적 완벽주의	1.729	.472	.203	8.508***
부적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34	.546	.037	9.123***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대인불안	.248	.187	.089	2.780**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486	.217	.118	4.104***
부적응적 완벽주의 → 대인불안	.471	.582	.062	7.592***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145	-.049	.165	-.876

\*\* $p < .01$ , \*\*\* $p < .001$ .



\*\* $p < .01$ , \*\*\* $p < .001$

그림 2.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표 3. 대인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의 통제 → 완벽	.472		.472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17	.257	.474
완벽 → 성취불일치	.546		.546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582	.102	.684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187		.187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049	.363	.314

주.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부정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측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80.972)$  (29), NFI=.969, CFI=.980, TLI=.969, RMSEA=.069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정응적 완벽주의,  $\beta=.498, p<.001$ ,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229, p<.001$ ,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응적 완벽주의는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535, p<.001$ , 와 대인불안,  $\beta$

$=.588, p<.0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대인불안,  $\beta=.198, p<.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대인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4와 그림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정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04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부정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대인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표 4.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정응적 완벽주의	1.786	.498	.195	9.172***
부정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28	.535	.037	8.881***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대인불안	.261	.198	.089	2.920**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504	.229	.117	4.289***
부정응적 완벽주의 → 대인불안	.476	.588	.063	7.602***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218	-.075	.164	-1.332

\*\* $p<.01$ , \*\*\* $p<.001$ .

.022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대인불안으로 가는 이중매개의 경로는 유의확률 .002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모의 성취지향 심리

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로써 대인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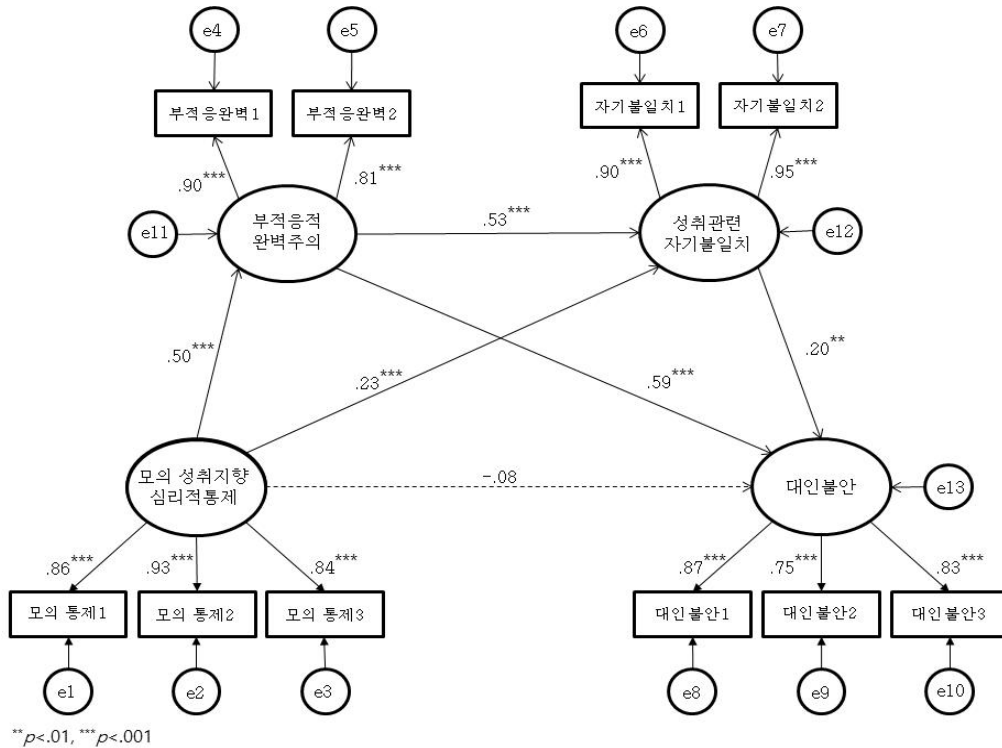


그림 3.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표 5. 대인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의 통제 → 완벽	.498		.498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29	.267	.496
완벽 → 성취불일치	.535		.535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588	.106	.694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198		.198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대인불안	-.075	.391	.316

주.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대인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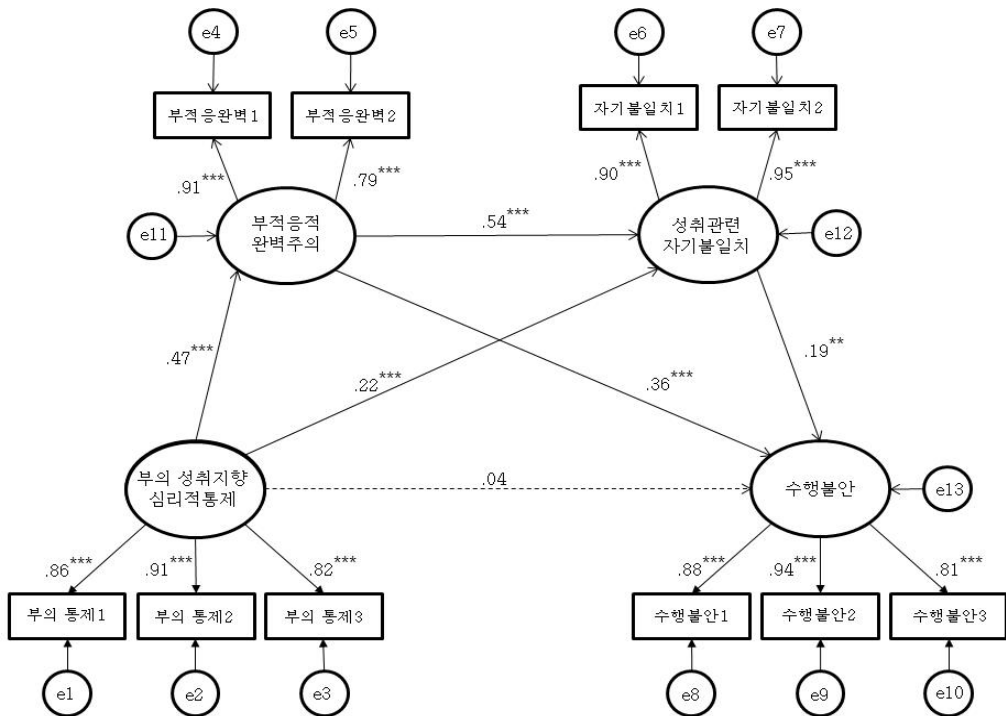
측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40.421)$  (29), NFI=.985, CFI=.996, TLI=.993, RMSEA=.032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보았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표 6.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적응적 완벽주의	1.755	.471	.204	8.587***
부적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25	.541	.037	8.877***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수행불안	.103	.193	.038	2.740**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493	.220	.119	4.153***
부적응적 완벽주의 → 수행불안	.114	.357	.024	4.686***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046	.039	.070	.652

\*\* $p < .01$ , \*\*\* $p < .001$ .



\*\* $p < .01$ , \*\*\* $p < .001$

그림 4.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표 7. 수행불안에 대한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의 통제 → 완벽	.471		.471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20	.254	.475
완벽 → 성취불일치	.541		.541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357	.105	.461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193		.193
부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039	.260	.298

주.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완벽주의,  $\beta=.471, p<.001$ ,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220, p<.001$ ,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541, p<.001$ , 와 수행불안,  $\beta=.357, p<.0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수행불안,  $\beta=.193, p<.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수행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6과 그림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03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수행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29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수행불안으로 가는 이중매개의 경로는 유의확률 .003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부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

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로써 수행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를 측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36.119 (29), NFI=.987, CFI=.997, TLI=.996, RMSEA=.025$  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변인 간 경로가 유의한지를 살펴 보았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beta=.498, p<.001$ , 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233, p<.001$ , 을 모두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beta=.529, p<.001$ , 와 수행불안,  $\beta=.357, p<.0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수행불안,  $\beta=.199, p<.01$ , 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종속변인인 수행불안 간의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8과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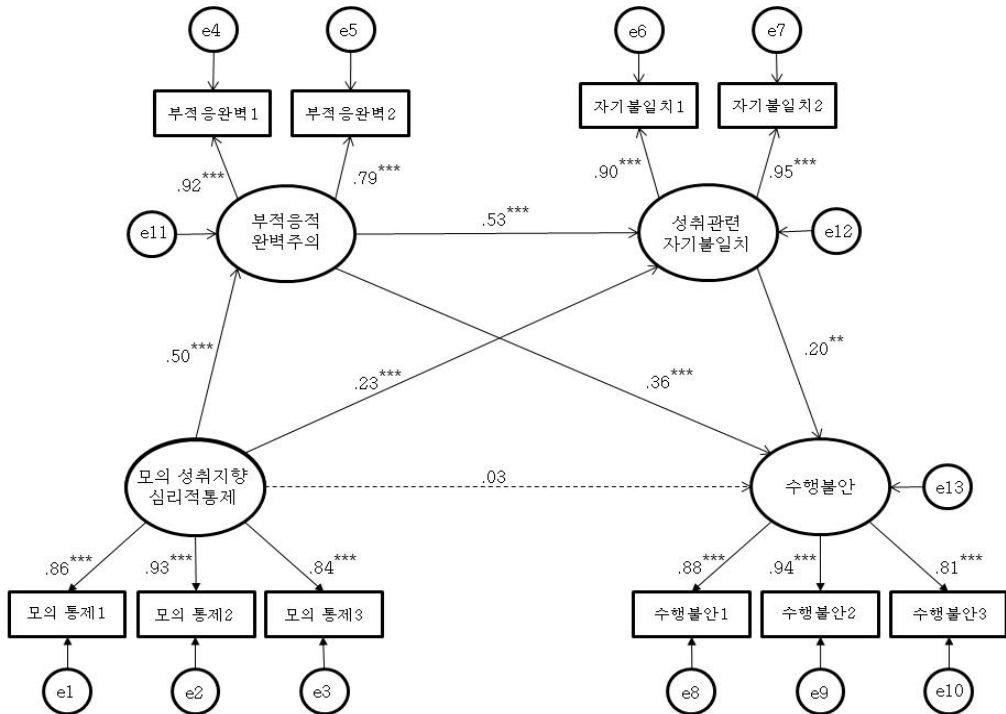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확인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매개하여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04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수행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확률 .035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모의 성

표 8.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경로	B	$\beta$	S.E.	C.R.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부적응적 완벽주의	1.813	.498	.196	9.266***
부적응적 완벽주의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318	.529	.037	8.629***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 수행불안	.105	.199	.038	2.802**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511	.233	.118	4.346***
부적응적 완벽주의 → 수행불안	.114	.357	.024	4.650***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032	.028	.070	.464

\*\* $p < .01$ , \*\*\* $p < .001$ .



\*\* $p < .01$ , \*\*\* $p < .001$

그림 5.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연구모형

표 9. 수행불안에 대한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연구모형의 직접·간접·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의 통제 → 완벽	.498		.498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233	.263	.496
완벽 → 성취불일치	.529		.529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357	.105	.462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199		.199
모의 통제 → (완벽) → (성취불일치) → 수행불안	.028	.276	.304

주.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 수행불안 관계에서 직접효과만 유의하지 않았음

취지향 심리적 통제에서 수행불안으로 가는 이중 매개의 경로는 유의확률 .004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즉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높아지며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크게 지각함으로써 수행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따라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논 의

청소년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회가 증가하고, 주관적인 불편감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사회불안에 노출되는 기회가 증가한다 (Morris & Masia, 1988). 이와 관련하여 사회불안은 주로 청소년기에 처음 발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이 시기의 사회불안은 장기적인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Dumas & Nilsen, 2005). 이러한 사회불안은 왜곡된 인지적인 요인으로 인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꾸준히 제안되어 왔다(김성주, 이영순, 2013; 홍영근, 이경

숙, 2013; Clark & Wells, 1995).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의 경로를 인지적인 측면에서 탐색하여, 더 나은 치료적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와 모 각각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유의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대인불안 간의 유의한 직접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의 관계에서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각각 유의한 간접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와 모의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들을 통해



서만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를 각각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부와 모 각각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유의한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며, 더불어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대인불안 간의 유의한 직접경로가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의 관계에서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수행불안과의 관계에서의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도 각각 유의한 간접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와 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부와 모의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가 수행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인들을 통해서만 수행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들이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들을 더 많이 증가시키지만, 부의 심리적 통제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Arim과 Shapka(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모두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진다고 제시한 국내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김송아, 2009; 윤선숙, 2005; 배효숙, 홍혜영, 2017; 최은경, 2017). 이는 부와 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모두 청소년의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청소년 자녀의 사회불안의 발달에 여전히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타인의 반응으로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부와 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정신건강을 저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지연, 2013; 박신영, 2014)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의무적 자기와의 불일치를 크게 지각하게 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Hankin, Roberts, & Gotlib, 1997; Higgins, Bond, Klenin, & Stauman, 1986)와도 일치한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거쳐 불안을 일으킨다고 제시한 선행연구(김대현, 2016)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이는 즉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와 지적 능력에 대해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통제를 가할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수행결과에 과도한 부담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그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성향이 발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로 인해 성취와 관련된 실제 본인의 모습과 꼭 해야만 한다고 믿는 의무적 자기의 격차를 크게 지각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여 자신을 자책하고 비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스스로 낮은 평가를 내리게 되어 타인을 대면했을 때나 수행 상황에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평가받는 듯한 느낌으로 인해 두려움 및 불안을 경험하게 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간의 관계를 직접 확인한 연구는 없었지만, 두 변인 간의 관계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기불일치 간의 유의한 영향력을 확인한 정소희와 양성은(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성취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며 기대에 부응했을 때만 자녀에게 애정을 주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질책하게 될 때, 자녀는 꼭 해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기준들을 세움으로써 실제 자기와의 격차를 크게 지각하게 되면서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을 직접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부적응적 완벽주의가 사회불안을 발달시킨다고 주장한 선행연구들을 지지하였으며(김윤희, 서수균, 2008; 안현선, 박성연, 2010),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역기능적 완벽주의를 매개로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인 대인불안 및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박신영(201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통제에 대해 스스로의 수행에 대해 의심하고 실수에 대해 걱정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을 발달하게 되는 듯 보인다. 그로 인해 대인 접촉 상황 및 수행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나 부족한 점들이 타인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회불안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의 관계를 파악할 때에는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가 개입될 때 설명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립변인이 아니라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

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에 초점을 두어 개입해야 더욱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에 의해 사회불안이 나타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줄이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지적 접근이 상담에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완벽주의와 관련된 내담자의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고 의무적인 자기에 대한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그 속에 내재된 역기능적인 생각이나 인지적 오류를 찾아 타당성을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돕는다. 그럼으로써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실수를 수용하도록 돕는다면 성공적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사회불안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인지적 과정의 이해를 넓히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개입 및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불안 증상은 장기적인 부적응의 원인으로 작용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두 변인 간 관계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와의 불일

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정소희, 양성은, 2011)를 통해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관계를 유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까지 확인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였다.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성취지향적인 심리적 통제가 성취 및 지적 능력과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동시에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와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밝혀내었다. 이는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결과는 성취와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가 여러 심리적 부적응 문제들을 일으킨다는 선행연구(김대현, 2016; 신혜린, 2003)와 더불어 추후에 진행될 연구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에 또 다른 통찰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즉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해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일으키며, 이를 통해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로를 제안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토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집에 대한 한계가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자립형 공

립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표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 집단에 본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부모의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만을 선정하여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았다. 이는 한국 고등학생들이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가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할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더 높은 영향력을 설명하였기 때문이었다(김지연, 2013; 박신영, 2014). 그러나 김지연(2013)의 연구에서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보다 사회불안의 모든 하위 유형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연구에서는 의존지향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윤선숙, 2005; 최은경, 2017; Chang et al., 2003; Arim & Shapka, 2008),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분되는 변인임이 밝혀짐에 따라(박선영, 2003; Turner et al., 1992), 이를 각각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모든 분석에서 완전매개 모형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결과로는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추측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관찰이나 면접과 같은 질적 연구 등을 통하여

본 결과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각 변인이 사회불안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인지적 경로를 탐색하여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개입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이에 대한 적용 및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회불안을 낮출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측정방식에 한계가 있다. 성취와 관련된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 지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반부 문항에 응답한 자신의 의무적인 모습을 토대로 후반부에서 실제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비교하여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의 값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 참여자에게 많은 집중을 필요로 했으며, 척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참여자에게는 성실한 응답이 어려웠을 듯 보인다. 따라서 이후로는 성취관련 자기불일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개발된다면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강민지, 김광웅 (2008).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 또래관계의 중재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1), 87-101.

김대현 (2016).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성취-관련 자기불일치와 속박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상희, 한기순(2017).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등 영

재자녀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영재교육연구, 27(3), 277-297.

김성주, 이영순 (2013).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및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919-1938.

김송아 (2009). 아동이 지각한 부와 모의 심리통제가 아동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완태 (2016). 실제-의무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김지연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유형이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혜신, 오경자 (2002). 한국판 아동·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박선영 (2003). 사회불안 유발 상황의 구분 및 사회불안 하위 유형의 차별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수자 (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외 및 대응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신영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완벽주의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9(1), 81-114.

박효정 (20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남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효숙, 홍혜영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8), 27-54.

- 송은영, 하은혜 (2008). 청소년의 외상경험, 완벽주의의 성향 및 부정적 사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8(1), 41-56.
- 신혜린 (2003).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자의식에 따른 성적하락과 시험불안의 관계 모형 검증: 영재교육기관 고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진 (2005). 자기 불일치와 목표성향 및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현선, 박성연 (2010). 행동억제 완벽주의가 여고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7(1), 209-225.
- 안희정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 수치심 및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 (2008). 아동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측정: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861-878.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오연, 방명애 (2012). 사회불안장애 위험 청소년의 사회불안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정서·행동장애 연구*, 28(2), 235-253.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 윤선숙 (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자기개념, 자의식 및 사회불안의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가은, 강민주 (2011). 중,고등학생의 자기 불일치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처방식과 희망적 사고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2(6), 141-155.
- 이국화, 하은혜 (2009).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1-18.
- 이유진 (2013). 청소년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윤, 조영아 (2001). 사회공포증과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93-104.
- 정소희, 양성은 (2011). 부모의 성취압력과 청소년의 자기불일치가 학업적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49(3), 23-37.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정승진, 연문화 (2000). 완벽성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47-167.
- 조용래, 표경식 (1996). 성취관련 자기불일치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 39차 학술대회 초록집*.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조은주, 이은희 (2013).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역할. *청소년학연구*, 24(1), 35-70.
- 최은경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통계청 (2010).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고3의 특징.
- 표경식, 조용래, 이무석, 김학렬, 박상학, 김상훈 (1998).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평가위협 스트레스가 수행불안에 미치는 효과. *신경정신의학*, 37(6), 1174-1185.
- 허심양 (2011).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역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영근, 이경숙 (2013). 사회공포 및 사회불안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2011년에서 2013년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295-310.

- 홍영근, 이경숙, 송호준, 백미숙 (2012). 자기초점주의, 특성 불안, 자기효능감이 사회공포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267-286.
- 황혜리 (2001).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의 심리적 특성 비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rim, R. G., & Shapka, J. D. (2008). The impact of pubertal timing and parental 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7, 445-455.
- Ballash, N., Leyfer, O., Buckley, A. F., & Woodruff-Borden, J. (2006). Parental control in the etiology of anxiety.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2), 113-133.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azley, M. B., Glass, C. R., Chambless, D. L., & Arnkoff, D. B. (2001). Cognitive self-statements in social phobia: A comparison across three types of social situ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6), 781-799.
- Beidel, D. C. (1991). Social phobia and overanxious disorde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545-552.
- Beidel, D. C., Turner, S. M., & Dancu, C. V. (1985). Physiological, cogni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social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2), 109-117.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5).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7(1), 73-79.
- Blatt, S. J.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American Psychologist*, 50, 1003-1020.
- Chang, L., Schwartz, D., Dodge, K. A., & McBride-Chang, C. (2003). Harsh parenting in relation to child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98-606.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41(68), 00022-3.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ila, J., & Beck, J. G. (2002). Is social anxiety associated with impairment in close relationship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Behavior Therapy*, 33(3), 427-446.
- Dumas, J. E., & Nilsen, W. J. (2005). 청소년 이상심리학. (임영식, 김혜련, 설인자, 조미자, 한상철,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Allyn & Bacon에 출판).
- Enns, M. W., Cox, B. J., & Larsen, D. K. (2000). Perceptions of parental bonding and symptom severity in adults with depression: Mediation by personality dimension.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5, 263-268.
- Essau, C. A., Conradt, J., & Peterman, F. (1999). Frequency and co-morbidity of social phobia and social fears in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7, 831-843.
- Frost, R. O., Marten, P. A,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Gaudiano, B. A., & Herbert, J. D. (2006). Self-efficacy for social situations in adolescents with generalized social anxiety disorder. *Behavioral and Cognitive Psychotherapy*, 33(2), 209-223.
- Hankin, B. L., Roberts, J., & Gotlib, I. H. (1997). Elevated self-standards and emotional distress during adolescence: Emotional specificity and gender differenc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6), 663-679.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15.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a 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Mendlowicz, M. V., & Stein, M. B. (2000). Quality of life in individuals with anxie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5), 669-682.
- Morris, T. L., & Masia, C. L. (1988).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Concurrent validity and normative data.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4), 452-458.
- Schlenker, B., & Leary, D. (1982).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1, 317-364.
- Soenens, B., Vansteenkiste, M., & Luyten, P. (2010). Toward a domain-specific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Distinguishing between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78(1), 217-256.
- Strauman, T. J. (1989). Self-discrepancies in clinical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cognitive structures that underlie emotional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5-14.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2), 326-331.
- 원고접수일: 2018년 9월 5일  
논문심사일: 2018년 9월 21일  
게재결정일: 2018년 10월 8일

#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ce's Social Anxiety: The Double Mediating Effects of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Related Self Discrepancy

Eun Seon, Lee

Jong-Nam, Kim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and perfectionism and the achievement related self-discrepancy between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in high school students. Data from 387 high school students were used for analysis. In addition, the questionnaires consisted of a 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A),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the Dependency-oriented and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cale (DAPC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and Achievement Self-Discrepancy Scale (ASDS). The SPSS 21.0 and AMOS 18.0 were used in this study. Using these program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bootstrapping method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had a significant and a direct effect o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related self-discrepancy. In addition, achievement-related self-discrepancy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However,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didn't have an effect on social anxiety directly. Secondly,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related self-discrepancy had a complete double mediating effect between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anxiety.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with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y.

*Keywords:* Parental Achievement-Oriented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Maladaptive Perfectionism, Achievement-Related Self Discrepancy